

대학병원

후쿠오카대학병원

1972년의 의학부 설치에 따라 이듬해인 1973년 8월에 개원했다. 2011년 1월 4일에는 '후쿠오카대학병원 신관'이 개관하여 현재는 본관, 신관, 서쪽 별관, 응급의료센터동, 데이케어동 및 연수센터 A동·B동의 7개 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면적은 90,992.63 m²이다. 총 23개의 진료과가 있으며 의사 427명, 임상연수의 88명, 간호사 851명, 코 메디컬 221명, 기타 187명 등 총 1,774명이 의료에 종사하고 있다. 915개의 허가 병상이 준비되어 있으며 외래환자는 하루 평균 1,121명, 수술건수는 연간 7,500건을 넘는다. 개원 이래 항상 의료기술의 향상, 의료기기의 정비, 진료조직의 내실에 힘써 지역의료에 공헌하고 있다. 또한 신관은 외래부문의 대부분이 장기별 센터로 이전하고 종합주산기 모자의료센터, 소아의료센터, 하트센터, 소화기센터의 입원병동이 개설되었으며, 지하철 나나쿠마선 후쿠다이마에역과 직결되어 있다. 그리고 신관 옆에는 300석 규모의 후쿠다이 메디컬 홀을, 지하층에는 메디컬 피트니스를 설치하여, 이곳에서 건강과 식생활 교육, 신약 개발, 의료의 연계를 실천해 나가고자 한다.

[진료과] 종양·혈액·감염증내과, 내분비·당뇨병내과, 순환기내과, 소화기내과, 호흡기내과, 신장·교원병내과, 신경내과·건강관리과, 정신신경과, 소아과, 소화기외과, 호흡기·유선내분비·소아외과, 정형외과, 성형외과, 뇌신경외과, 심장혈관외과, 피부과, 비뇨기과, 산부인과, 안과, 이비인후과, 방사선과, 마취과, 치과구강외과



2011년 1월 4일에 개원한 신전료동에는 외래부문 대부분이 장기별 센터로 이전하고 종합주산기 모자의료센터, 소아의료센터, 하트센터(수환기질환 전문), 소화기센터의 입원병동을 개설했으며 지하철 나나쿠마선 후쿠다이마에역과 직결되어 있다. 또한 전료동 앞에 300석 규모의 후쿠다이 메디컬 홀을, 지하층에는 메디컬 피트니스를 설치하여 이곳에서 건강, 식생활 교육, 신약 개발, 의료의 연계를 실천해 나가고자 한다.

후쿠오카대학 지쿠시병원



1985년 지쿠시노시에 개원한 본 대학의 병원이다. 허가 병상은 345개이며 14개의 진료과가 있다. 외래환자는 하루 약 380명에 이른다.

총 570명이 의료에 종사하고 있으며, 건물은 본관(메디컬동·5층 건물) 및 별관(관리연구동·7층)의 2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2007년에는 후쿠오카현으로부터 '지역의료 지원의원'으로 인가 받아 지역의료권(지쿠시노시·다자이후시·가스가시·오노조시·나카가와마치)의 중핵병원으로 공헌하고 있다.

또한 2013년 1월에 신병원동이 준공예정으로서 현재 신축공사가 진행 중이다.

[진료과] 순환기내과, 내분비·당뇨병내과, 호흡기내과, 소화기내과, 소아과, 외과, 정형외과, 류마티스과, 뇌신경외과, 비뇨기과, 안과, 이비인후과, 방사선과, 마취과

